

챗GPT로 쓴 동시

로블록스 보안관



유페이퍼

박지숙 & ChatGPT 공저

지은이의 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 동시집을 펼치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법 같은 세계에 초대받았어요.

이 동시집은 ChatGPT의 가상 펜으로 그린 동시, 지은이와 ChatGPT가 즐겁게 말놀이한 동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로, 수많은 대화와 텍스트를 학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풍부한 언어적 지식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은이는 순수하고 호기심 가득한 열정으로 챗GPT와 소통할 수 있었어요. 색다른 감정과 모험을 만나며, 어린아이 같은 특유의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며, 마음이 더욱 풍부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동시집은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담아냈어요.

제1부 동시 편에서는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낸 기쁨, 특별한 순간의 느낌, 어린이의 마음을 설레게 할 감정과 놀이,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발견하기 등을 실었습니다.

제2부 동화시 편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그렸고요.

제3부 우화시 편에서는 조선 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지은 시 ‘이노행(狸奴行)’을 재해석한 동시와 조선 시대 임영이 지은 가전체 소설 ‘의승기(義勝記)’를 재해석한 동시를 넣었습니다.

‘동시와 ChatGPT가 만나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지은이가 강한 호기심으로 말놀이를 즐긴 이 동시집을 통해 여러분도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동시집을 읽으면서 각 동시의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만의 더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낙엽이 사락사락 속삭이는 가을에
박지숙 & ChatGPT

<차례>

지은이의 말

제1부 동시

마법사라면 * 7

내 친구 AI * 8

챗GPT * 9

로블록스 보안관 * 10

왕할머니 생일날 * 12

참 못했어요! * 14

경고 * 15

빨래집게처럼 * 16

보안등 * 17

배추밭 조각가 * 18

흙런 볼 * 19

담쟁이 * 20

달콤한 화해 * 21

궁금해! * 22

발걸음의 색깔 * 23

내 맘도 모르고 * 24

먹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 25

요술 안경 * 26

기지개 켜기 * 28

오늘에게 * 29

드디어 때가 됐어! * 30
하늘을 난다면? * 31
공부하기 싫은 날 * 32
가위바위보 * 34
축구공 * 35
한여름 방귀 콘서트 * 36
별거 아니네! * 37
그래도 최고는? * 38

제2부 동화시

잘 지내고 있니? * 40

제3부 우화시

고양이 왕 * 44
마음 나라 전쟁 * 48

제 1 부 동시

마법사라면

"헛, 다시는 너랑 안 놀 거야."

친구와 다투고 쏘아붙인 말
뽀족한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요.

힘없이 돌아서던 친구
축 늘어진 책가방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요.

친구에게 날아가 볼까요?
꿈속으로 찾아가 볼까요?

마법의 지우개로
친구랑 다툰 일
친구에게 쏘아붙인 말
지우고 싶어요.

쓱쓱쓱쓱 쓱쓱쓱쓱!

내 친구 AI

내 친구 AI, 항상 곁에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마법사.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

함께하는 모든 순간,
미래 세계를 그리지.

챗GPT

나만의 전용 AI 챗GPT
궁금증을 물으면 대답해줘요.

나만의 비밀 친구 챗GPT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대화해보면,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로블록스 보안관

삐-익! 삐-익!

빨간 신고 버튼이 요란하게 울렸어.

"이크, 롤플레이팅 게임에 일이 생겼군.

부랴부랴 보안관, 출동!"

로블록스 보안관은 서둘러 달려갔어.

"보안관님, 보안관님! 저 형이 욕했어요,"

작은 꼬마가 플레이어를 가리켰어.

"흠! 그렇군."

부랴부랴 보안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엄숙히 경고했지.

"명심하시오!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접속 금지 하루!"

삐-이익! 삐-이익!

빨간 신고 버튼이 소란스레 울렸어.

"이크, 서바이벌 게임에 무슨 일이 생겼군.

부랴부랴 보안관, 출동!"

로블록스 보안관은 잽싸게 달려갔어.

"보안관님, 보안관님! 저 사람이 못되게 굴어요,"

한 소년이 플레이어를 가리켰어.

"흠! 그렇군."

부랴부랴 보안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호하게 경고했지.

"명심하라!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접속 금지 이틀!"

삐-이이-익! 삐-이이-익!

빨간 신고 버튼이 다급하게 울렸어.

"이크, 배틀 게임에 큰일이 생겼군.
부랴부랴 보안관, 출동!"
로블록스 보안관은 황급히 달려갔어.
"보안관님, 보안관님! 저 사람이 내 코인을 빼앗아 갔어요,"
한 아이가 플레이어를 가리켰어.
"흠! 그렇군."
부랴부랴 보안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력하게 경고했지.
"명심해! 한 번만 더 못된 짓 하면 접속 금지야!"

부랴부랴 보안관은 로블록스 세상을 주욱 둘러보았어.
하하호호 킁킁깔깔
아이들 웃음이 피~음 피~음 터지지 뭐야.
부랴부랴 보안관도 느긋하게 씨~익 웃었단다.

* 로블록스: 2004년 미국에서 설립된 온라인 게임 플랫폼. 가상세계 내에서 레고 모양의 아바타를 이용해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 롤플레이팅 게임: 이용자가 게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을 맡아 줄거리를 따라 진행해 나가는 컴퓨터 게임.

넙쿨째 올라오는
아빠 발
고구마 같다.

“에구구, 내 새끼들!
먼 길 오느라 욱봤지?”

방긋 웃으며 반기는
98살
왕할머니
고구마꽃처럼 예쁘다.

참 못했어요!

“우리 예쁜둥이, 시원하지?
참 잘했어요.”

강아지 산책 나온 아줌마가 말해요.
똥 싸는 강아지 보며 활짝 웃고 그냥 가요.

산책길 한가운데 덩그런 강아지 똥
내 눈엔 알미운 똥둥이 가족

참 못했어요!

도장

꽝

경고

우리 반 말썹꾸러기
도현이가
자꾸 놀린다.

“ ㄴ ”

“ ㄴ ”

월화수목금
날마다 늘어나는
얄미운 장난

“ ㄴ ”

“ ㄴ ”

흥, 김도현!
꿈 깨라, 꿈 깨.
나는 꿈쩍 안 한다.

너, 조심해!
내 가슴속 비밀무기 보낼 거야
반사 거울

빨래집게처럼

햇볕 쨍쨍한 날
살랑바람 부는 날

빨랫줄에 매달린 집게가 말했대

“빨래야, 내가 꼭 잡을게.
너는 그냥
햇살에 바람에
뽕뽕 뽕뽕 춤추어라.”

먹구름 찌푸린 날
눈물바람 나는 날

철봉에 까꾸로 매달려 집게처럼 말할게

“선우야, 네 손 꼭 잡는다.
우리 그냥
햇살처럼 바람처럼
신나게 환하게 뽕뽕고 놀자, 응?”

보안등

외진 공원 산책길
안심하고 가라고
등불 환히 켜어

빨간 장미 한 송이

배추밭 조각가

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사각,

이른 아침
배추밭이 요란하다,
애벌레가 뽕족 이빨로
잎사귀 갉아 먹는 소리

사각사각사각,
사각사각사각,

하트 동그라미 세모 네모
나비 지렁이 고양이 악어
기차길 뽕족산 우주선

배추밭이 조각 전시장 되었다

말끄러미 둘러보던 우리 아빠
혀를 차며 한마디 한다.

“요 꿈틀이 먹보들아,
우리도 맛 좀 보자!”

흠런 볼

탁!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는 순간

야구공은 알았어,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구야,

안~~~~녕~~~~”

담쟁이

담쟁이는 용감한 벽 타기 선수야.

여름 피약별이 쏟아져도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위로
위로
뻗어 오르지.

가는 틈새 좁은 틈바구니
높다란 담 매끄러운 유리 벽도
넌출
넌출
타고 오르지.

담쟁이는 대단한 벽 타기 선수야.

달콤한 화해

친구와 다투고 마음에 불이 났어.

절교다, 절교!

획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길

“수찬아! 수찬아!”

친구 목소리가 뒤쫓아 왔어.

멈출까?

기다릴까?

같이 갈까?

망설이는 사이, 사라진 친구 목소리

터벅터벅

터벅터벅

기운 없이 집으로 오는 길

햇살은 왜 잔뜩 찜찜할까?

“수찬아, 우리 같이 먹자!”

쭉 나타난 아이스크림 하나

새콤달콤 시- 원- 하다!

궁금해

연못에 사는 꼬물꼬물 올챙이
뒷다리를 쏘옥
앞다리를 쏘옥
개구리로 변신

유충병에 사는 똥글똥글 작은 알
꿈틀꿈틀 애벌레
움짚움짚 번데기
장수풍뎅이로 변신

엄마 품에 안긴 귀여운 내 동생
토실토실 작은 손
보송보송 작은 발
이담에 어떻게 변신할까?

궁금하다, 궁금해!

발걸음의 색깔

친구가 기다리는 놀이터
운동화 껴차 신고
폴짝폴짝
뛰어나가는
파란빛 발걸음

혜지 생일날
선물꾸러미 가슴에 안고
깡충깡충
뒹뒹어가는
핑크빛 발걸음

시험 망친 날
무거운 책가방 메고
터덜터덜
엄마 잔소리 들으러 가는
잿빛 발걸음

내 맘도 모르고

“어영, 이게 뭐야?”

띠부싹을 본 헤지가 입을 삐죽거린다,
내가 준 생일 선물 스티커

헤지 닳은 무를 찾아
편의점 열 군데나 헤매고 다녔는데
내가 최고 좋아하는 스티커
내가 가진 최고 희귀템
나를 몽땅 준 건데,

헤지는 무도 모르고 내 맘도 모르고……

* 띠부싹: 떼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 중 뮤, 뮤츠, 꼬부기 등은 희귀 아이템이다.

먹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나나는 달콤한 맛
내 동생이 좋아하고

사과는 새콤한 맛
우리 누나가 좋아하고

배는 시원한 맛
우리 아빠가 좋아하고

파인애플은 상큼한 맛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새콤달콤 상큼 시원
과일의 맛은 아름다워

내가
먹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요술 안경

우리 집 꽃나무 아픈가 봐
꽃이랑 잎사귀랑
자꾸만 시들시들해

물이 먹고 싶은 걸까?
햇볕을 쬐고 싶은 걸까?

꽃나무 마음 알게 해줄
요술 안경을 찾아야겠어.

우리 동네 강아지 집을 잃었나 봐
낮에도 저녁에도
이리저리 돌아다녀

엄마 개를 찾는 걸까?
집주인을 찾는 걸까?

강아지 마음 들여다볼
요술 안경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반 친구 민혁이가 슬픈가 봐
음악 시간에도 급식 시간에도

기운 없이 입만 뻥긋뻥긋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디 아픈 걸까?

민혁이 마음 눈여겨볼

요술 안경 가졌으면 좋겠어.

기지개 켜기

나무처럼

키가 커지고 싶어서

쭈-욱

기지개를 켜고

하늘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싶어서

쭈-욱

기지개를 켜고

오늘에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큰소리로 인사해요.

"오늘아, 안녕!

신나게 알차게 하루를 보내자.

오늘을 기대할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소곤소곤 인사해요.

"오늘아, 안녕!

신나고 알찬 하루였어.

내일도 기대할게."

드디어 때가 됐어

함박눈이 쏟아지는 한겨울
봄 꿈에 부풀었던
목련 꽃눈,
드디어 때가 됐어!
솜털 훌훌 벗고
환한 웃음 터트리네.

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봄 꿈에 부풀었던
호랑나비 번데기,
드디어 때가 됐어!
껍질 훌훌 벗고
팔랑팔랑 춤을 추네.

하늘을 난다면?

내가 만약 하늘을 난다면
말 조각을 주울 거야
교실 복도
학교 운동장
골목 놀이터
곳곳에 튕겨버린
날카로운 조각들 찾아낼 거야

내가 만약 하늘을 난다면
꿈 조각을 찾을 거야
교실 복도
학교 운동장
골목 놀이터
곳곳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조각들 주워올 거야

공부하기 싫은 날

하느작하느작 손바닥만 덮고 있을 때야.
비눗방울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나를 감싸 창문을 빠져나갔어.

비눗방울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어.
폭신한 구름을 뚫고,
햇살에 비치는 산맥을 지나,
돌고래가 헤엄치는 바다를 건넜지.

비눗방울은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
굵직한 빗방울이 쏟아져도,
모래폭풍이 불어와도,
거친 눈보라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았지.

비눗방울은 나를 감싼 채
등
등
등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
우주 밖까지 나갈 기세였지.

“수찬아, 뭘 꾸물거리니?
시험공부 다한 거야?”

평!

요술처럼 엄마 말에 비눗방울이 터져버렸어.
찌푸린 내 얼굴만 화장실 거울에 남아 있었어.

가위바위보

가위는 보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어떤 것이 더 세지 않아
어떤 것이 더 약하지 않아

이긴다는 마음을 내미는
용감한 놀이일 뿐이야.

축구공

뽕! 뽕!

맘껏 차 봐

뽕! 뽕!

힘껏 차 봐

차는 만큼 굴러갈게

차는 만큼 날아갈게

한여름 방귀 콘서트

연못으로 소풍 나온 코끼리와 개미,
물고기랑 사이좋게
맛있는 점심 나누어 먹었지.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개미가 뽀-웅 방귀 뽀웅뽀웅,
물고기도 뽕뽕 방귀 뽕뽕뽕뽕,
코끼리도 뽀-우웅 방귀 푸우우웅,

구경하던 해님 얼굴 찡그리고,
지나가던 흰 구름 잿빛 되어
소낙비를 주룩주룩!

우하하하! 여름 한낮,
모두 함께 즐기는 방귀 콘서트.

별거 아니네

달걀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달걀 하나

탁!

지글지글 익으면

소금 툭툭

달걀 프라이 완성

별거 아니네!

체육 시간 높다란 뽀뽀

가슴이 벌렁벌렁

다리가 후들후들

입술 양 다물고

힘껏 뛰어 발구르기

껍--충!

4단 뽀뽀기 성공

별거 아니네!

그래도 최고는?

게임 하는 게 좋아
축구 하는 게 좋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책 읽는 게 좋아
수다 떠는 게 좋아
피아노 치는 게 좋아
멍 때리는 게 좋아

그래도 최고는,
그냥 노는 게 좋아

제2부 동화시

잘 지내고 있니?

며칠 전 수요일 오후야.
햇살이 따듯한 봄날이었어.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미-야-옹- 미-야-옹-
서글픈 고양이 울음이 길가에 울려 퍼졌어.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엄마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가 헤어진 거야.

이편에 엄마 고양이를 쫓아온 아기 고양이는 둘
저편에 엄마 고양이를 따라오지 못한 아기 고양이는 셋
자동차가 썩썩 지나가는 길에서
미야옹-미야옹-
엄마 고양이가 애타게 건너편 아기들을 불러댔어.
이야옹-이야옹-
건너편 아기 고양이도 슬프게 엄마를 불러댔지.

“어떡하면 좋지?”
“아기 고양이를 안아 엄마 고양이에게 데려다줄까?”
“사람이 만지면 엄마 고양이가 버릴지 몰라.”
우리는 발만 동동 굴렀어.

그때였어. 건너편 아기 고양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했어.
엄마 고양이에게 오려고 용기를 낸 거야.
저만치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미야옹- 미야옹-
엄마 고양이가 소스라쳐 멧었어.
야옹- 야옹-
아기 고양이가 바들바들 떨었어.

“안 돼요, 안 돼! 멈춰요, 멈춰!”
엄마와 나는 소리치며 두 팔을 흔들며댔어.
“여기 고양이 있어요. 천천히 와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함께 외쳤어.
또 다른 아줌마도 같이 외쳤어.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도로에 나갔어.
사람 방패막이를 본 자동차들은 그제야 천천히 속도를 줄였지.
그때 건너편에서 한 할아버지가 외쳤어.
“내가 고양이들을 몰아보리다!”
할아버지의 작전은 성공이었어.
겁에 질린 아기 고양이들이 도로로 한 발 내려섰거든.
그 순간
끼-익!
자동차 한 대가 급하게 멈췄어.

카-아-옹!
아기 고양이들이 화들짝 놀라 달아났어.
엄마 고양이도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어.
건너편과 이편의 덤불 숲이 흔들린 것은 잠시 잠깐
고양이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어.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
고양이들아, 어디로 갔니?
모두 만나 잘 지내고 있지?

제3부 우화시

고양이 왕

- 조선 시대 정약용이 지은 시
'이노행(狸奴行)'을 재해석한 우화시

옛날 남산골에 한 노인이 살았어.
노인은 고양이 한 마리를 애지중지 길렀단다.
“야옹아, 너는 우리 고을 쥐잡이 대장이 되려무나.
쥐 녀석들이 곡식 먹지 않게 창고를 단단히 지켜야 해.”
고양이는 ‘이야옹! 이야옹!’ 아양 떨며 대답했지.
그런데 고양이는 자라면서 점점 고약하게 변했지 뭐야.
밤이면 노인이 남겨둔 소중한 고기를 훔쳐 먹고
생선 향아리며 꿀단지까지 다 뒤지네.

어둠을 타고 살금살금 못된 짓 하던 고양이는
“어허, 밖에 누구요!”
노인이 문 열고 소리치면 획, 그림자처럼 숨었어.
등불을 켜고 비춰보면 남은 것은 여기저기
더러운 발자국, 이빨 자국 난 찌꺼기뿐.

노인은 잠 못 이루고 기운을 잃었어.
이 생각 저 생각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
“괘씸한 고양이 녀석, 따끔하게 혼낼까?
아니야, 아니야. 언젠가는 말썽 피우지 않을 거야.
못된 쥐들을 꼭 잡아낼 거야.”
노인은 고양이를 믿기로 했어.

그런데 웬걸.

들쥐는 구멍 파서 벼를 물어다 쌓아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모조리 훔쳐 갔어.
“몹쓸 쥐들 때문에 살 수가 없구나.”
쥐 등쌀에 백성들은 나날이 가난해지고
가을 옥수수대처럼 삐쩍 삐쩍 말라갔어.

노인은 고양이를 불러 따끔하게 혼냈어.
“이놈, 고양이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삼았더냐?”
“쥐잡이 대장시오.”
고양이가 몸을 웅크리며 나직이 대답했어.
“오냐. 나는 네게 마음대로 쥐 잡을 권력을 주었으며
칠혹 같은 밤에도 벼룩 잡는 올빼미처럼
번쩍이는 황금 눈을 주었으며
보라매 같은 쇠 발톱
호랑이 같은 톱날 이빨
펼 펼 날고 내리치는 날쌔 용기까지 주었다.
쥐 녀석들이 너를 보면 벌벌 떨며 몸을 바치도록 말이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녀석이 왜 허튼짓을 하느냐?
하루에 쥐 백 마리를 잡은들 누가 말리겠느냐.
보는 사람마다 ‘장하다! 기특하다!’ 칭찬할 테고
네 공을 칭송하는 행사도 지내지 않더냐.
그런데 너는 지금, 쥐는 잡지 않고

도리어 앞장서서 도둑질만 하는구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못된 짓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이는 싹싹 빌며 물러갔어.

그러나 얼마 뒤였어.

백성들의 곡식 창고가 텅텅 비어 나갔어.

고양이가 처마 타고 지붕 깨고 담장까지 무너뜨렸지.

좀도둑인 쥐들이 못하는 짓을

힘세고 권세 높고 마음마저 거칠어진 고양이가

제멋대로 턴 거야.

“야옹이님, 야옹이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쥐 녀석들이 거리낌 없이

쥐구멍을 나와 꺾꺾대고 수염을 쓰다듬네.

쥐 녀석들은 흠친 물건을 모아다가 고양이에게 뇌물로 바쳤어.

그런 다음 천연덕스레 고양이랑 돌아다녔지.

“어흠! 어흠! 물렸거라, 고양이님 나가신다!”

쥐 녀석들은 하인처럼 고양이를 호위했어.

떼를 지어 나팔 불고 북치고

대장기를 높이 휘날리며 으스대며 다녔지.

큰 가마를 탄 고양이는 왕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떠받드는 쥐들을 보며 좋아라했단다.

이 광경을 본 노인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

노인은 고양이의 가마 앞을 가로막으며
큰소리로 호통을 쳤어.

“네 이놈 고양이야!

내 직접 붉은 활에 큰 화살을 재어 너를 쏘아 죽이리라.

네 이놈 쥐 떼들아!

또다시 행패 부리면 차라리 사냥개를 불러 내리라.”

겁에 질린 고양이와 쥐들은

꿈무늬를 내뺀어 바람처럼 사라졌단다.

마음 나라 전쟁

- 조선 시대 임영이 지은 가전체 소설
'의승기(義勝記)'를 재해석한 우화시

옛날 옛적에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마음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면서
한없이 넓은 임금의 덕을 칭찬했지.

그런데 얼마 뒤였어. 임금이 점차 덕을 잃기 시작한 거야.
나라 곳곳에서는 게으름, 욕심, 불의와 같은
도적이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혔어.
마음 나라는 금세 엉망진창 어둠의 세계로 변했고
겁에 질린 임금은 황야로 도망쳤단다.

가연은 임금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
“빨리 마음 나라를 되찾고 싶구나.”
임금의 소망은 간절했어.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지.
좌절, 불평, 불만, 거짓, 미움 같은
무지막지한 도적들이 설치며 막았거든.

그때 한 장수가 불뚝 일어섰어.
그 이름은 바로 깨우침!
깨우침은 반짝이는 별처럼 총명하게 일깨우는 자였거든.
“마음을 헤집는 못된 도적들아, 당장 사라져라!

마음 나라는 성스러운 땅,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니라!”
그의 용감한 기세에 도적들은 놀라 무릎을 꿇었지.
그제야 세상 끝까지 떠돌던 임금은 마음 나라로 돌아왔단다.

임금은 마음 나라 백성들에게 말했다.
“내 덕이 부족해 도적들이 제멋대로 설쳤노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지금부터 신하들은 당당함을 지켜
다시는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게 도와라.”
그러고는 깨달음을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단다.
나라는 곧 안정을 되찾고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어.

마음 나라 임금은 또 군사들에게 명령했어.
“도적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노라.
그들은 기회를 틈타 침입하곤 할 테니,
모조리 없애야 한다. 누가 먼저 나서겠는가?”
“임금님, 제게 맡겨 주소서. 제가 도적을 싹 무찌르겠습니다.”
장수 씩씩함이 말했어. 그는 사람됨이 굳세고 기운찬 자였지.
씩씩함은 남은 도적을 말끔히 깨부수었단다.

얼마 후, 씩씩함은 군사와 함께 적의 요새로 떠났어.
마음 나라를 넘보지 않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줄 작정이었지.
의로운 말을 타고, 총신 갑옷을 입고 인의의 방패를 들고
행군하는 그의 모습은 진짜 장군다웠어.
이윽고 씩씩함과 군사들은 험한 곳 깊숙이 들어가 적의 경계에
이르렀어.
넓은 바다 건너편에 도적의 첫 번째 요새가 있었어.

마음 나라 군사들은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단다.
그때 거친 파도가 용솨음쳐 하늘까지 맞닿았어.
앞서가던 배는 뒤집히고 뒤따르던 배는 바다에 잠길 듯했지.
곧 수천 개의 돛대와 노가 부서지고 파도에 휩쓸렸단다.

“겁내지 마라. 우리는 의로운 군사들이다.

굳세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자.”

씩씩함은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어.

힘든 시련에도 곳곳하게 바다를 건너게 했지.

씩씩함은 우쭐대는 도적 자랑질을 없애고

꼬드기는 도적 욕심을 무찔렀어.

도적 화가 사는 산을 무너뜨리고

도적 욕심이 사는 골짜기를 메워 버렸지.

그렇게 도적의 요새는 모두 평정되었단다.

그 후, 도망친 도적들은 마음 나라 한구석을 차지한 채

사납게 버티며 변덕스럽게 속임수를 부리곤 했어.

마음 나라 임금은 그들도 몽땅 소탕하려 했지.

그때 깨우침이 말했어.

“옛날에 어진 임금들은 덕을 밝히고 힘을 과시하지 않았나이다.

임금께서도 악한 자들을 잘 다독이시면, 그들은 분명 바르게 살 것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우침에게 말했어.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로다.”

마음 나라 임금은 전쟁을 멈추고 도적들을 품어주었어.

그러자 나머지 도적들이 모두 와서 복종했단다.

제목: 로블록스 보안관
발행일: 2023-11-21
저자: 박지숙 & ChatGPT
출판사: 유페이퍼 전자책
가격: ₩4,500